

2008국제광산업전시회에 앞서...



전 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금년 8회째를 맞는 국제광산업 전시회 및 광기술컨퍼런스 행사는 국내외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성공적인 전시회로 평가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Fiber To The Home: 광가입자망)관련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광통신 업체의 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과 관련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국가적·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LED 및 휴대폰 부품시장 등 반도체광원분야의 빠른 성장은 광산업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전시회는 광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지방전시회 한계를 탈피하여 국제규모의 유일한 전문산업 전시회로 정착함으로써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광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내 광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국내 광관련 대기업의

홍보관 구성과 10여개 유관기관·단체의 광산업공동홍보관 구성, 중국관, FTTH특별관, LED공동관 등의 국가관/특별관 구성 등으로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가업체의 구매상담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바이어 초청지원, 수출화지원 프로그램운영, 14개 업체 20개 주제발표의 신기술 발표세미나, 15개국 200명이 참가하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전시회 참가업체들과의 활발한 상담 및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2009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28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미래를 켜는 빛」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는 50개국 200만명 관람을 예상하는 가운데, 광기술과 광산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빛의 도시로서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광엑스포개최에 앞서 개최되는 금년도 국제광산업전시회는 광엑스포 프레행사로서 전시규모나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하여 광주가 국제 광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